

아연 덤프수입 시비 고조

예비판정 앞두고 신경전 ... 무협의 판정시 비철금속 수입 경쟁가열

중국 및 CIS(독립국가연합)산 아연 덤프수입문제를 놓고 국내 생산기업인 고려아연과 수입기업인 종합상사들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고려아연측이 94년11월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를 제소하면서 야기된 아연 덤프수입논쟁이 3월말로 예정된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앞두고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덤프수입제소건은 아연이 일반소비재가 아니라 금속제품 생산과 도금 등에 사용되는 기초원자재란 점과 제소자가 국내 독점생산기업이란 점에서 그간의 제소건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측이 덤프제소를 한 사유는 아주 명확하다. 시장가격의 개념이 없는 러시아·카자흐·우즈베크 등 CIS 3국과 중국산 아연이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수입돼 고려아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락하고 당기순이익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측이 관세청과 무역협회가 집계한 무역통계치를 기준으로 제시한 중국과 CIS산 아연수입량은 91년 5194톤, 92년 1만2947톤, 93년 3만9413톤, 그리고 94년의 5만8705톤으로 4년사이에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도 91년의 605만6000달러에서 92년 1577만달러, 93년 3670만6000달러, 그리고 94년에는 5551만9000달러로 9배 가량이나 늘었다.

이에 비해 이 기간동안 페루·멕시코·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지역산 아연수입은 연간 6312톤(663만8000달러)에서 1만6265톤(1933만5000달러)사이를 오르내리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난 91년의 90% 수준에서 94년에는 60%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려아연의 수익감소가 94년 기준으로 1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측이 추산하고 있는 덤프마진율은 20~100% 수준이다.

94년 고려아연의 판매가격은 톤당 90만~1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중국 및 CIS산 아연의 판매가격은 80만원 수준을 밑돌았다는 얘기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십년간 엄청난 투자와 기술개발노력을 일궈 놓은 세계 수준의 국내 아연산업 기반이 알루미늄산업과 같이 하루 아침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내 수요기업들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덤프수입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고려아연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측이 이처럼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수입자인 종합상사들은 맞대응을 유보한 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1995/4/10>